

# 꿈에 본 것들 그려내니 모두의 마음 편안하여라

만다라 작가 김영옥 네 번째 개인전 '붉음의 화두'...15일까지 공간 루에서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다. 잠에서 깨고 나면 사라지는 환영이지만 이 무의식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가가 있다. 만다라를 그리는 김영옥 작가다.

김 작가는 작업은 꿈의 무의식을 깨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김영옥 작가는 칼 구스타브 융의 꿈 분석 심리에 관심을 갖고 꿈의 기록과 스케치를 당연한 일과처럼 여겼다. 그는 잠에서 깨면 꿈의 소재들을 통해 그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어느 날 김 작가는 꿈에서 한 권의 그림책을 보았다. 꿈에서 본 것이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옮길 정도로 기억이 생생했다. 그림들은 모두가 붉게 새겨져 있는 것이고, 그림 사이로 빛이 고풍하게 확산되는 모습이었다. 한 장씩 넘길 때 마다 각도에 따라 빛의 그림들이 전개되고 있었다.

김영옥 작가는 꿈에서 깨어나 기억을 더듬어 돌 새김 작업에 열을 다했다. 그의 작품은 해인(海印), 고구려 고분벽화, 만다라와 닮아있었다.

조선 후기 민중 사이에서 인정(印章) 중 최고의 인

장이라고 전설로 떠돌던 해인은 그 연원을 추적해 올라가면 신라시대 의상 대사의 법상계가 그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김 작가는 작품은 법상계처럼 중첩된 기하학적 무늬를 담고 있다. 중심을 향해 소용돌이처럼 들어가는 느낌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근원을 향하도록 흡인시키는 우주의 힘으로 느껴진다.

또 김 작가는 꿈에서 본대로 고구려 고분에 나오는 벽화의 이미지를 작품에 담고자 했다. 특히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색을 중심으로 고분벽화에서 우러나오는 고대적 색감을 연출했다. 더불어 그의 작품에는 우주의 블랙홀이 연상되는 만다라의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조용한 원광대 교수는 "김영옥의 그림을 보면 나도 모르게 우주의 근원으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중심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주원적 요소가 떨어져 나가는 작용이 함께 일어남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한결 정



고요한 동방의 빛 (60×30cm)

화돼 우주의 근원과 소통한다는 느낌을 주므로 심리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고 평했다.

김영옥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내가 추구하는 예술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을 승화시켜 표현한 것이며 그것을 감상하는 이로 하여금 공감하게 하는 것이다"며 "이번에 전시하는 만다라 작품이 사상과 이념을 넘어 세상을 정화시키고 마음과 정신을 치유해 주는 치료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작가는 <만다라를 통한 명상치유-붉음의 화두>(공간 루)책을 펴냈다. 이 책은 다른 장르의 예술에 비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편인 그의 작품과 작가의 내면세계를 기록한 명상집이다. 전시회는 11월 15일까지 공간 루 정동 갤러리에서



김영옥 만다라미술심리연구원장

열린다. (02)765-1883

이나는 기자 oasis1983@hanmail.net

## 양선희씨 '신중도' 大賞

조계종 문화부, 불교미술대전 결과 발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진명)는 '제 26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의 최종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문화부는 10월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최종심사를 거쳐 135작품을 분야별로 진행해 수상내역을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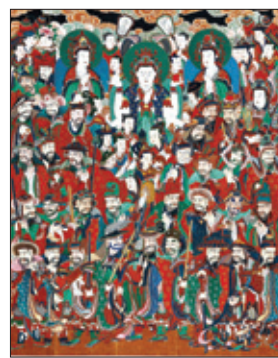
불미전 수상작품은 52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장려상 6점, 특선 11점, 입선 29점이다.

대상은 양선희 씨의 '신중도(회화부문·사진)'가, 최우수상은 김영찬 씨의 '마애약사존불(조각부문)'과 김승열 씨의 '움마니반떼춤 소동과 천우사화 소동(공예부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이용주 씨의 '고행상(조각부문)', 유현정 씨의 '나한도(회화부문)', 한은순 씨의 '족염색 누비장삼(공예부문)'이 최종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문화부는 그동안 작품설명서 심사로 시행해오다 불미전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실제작품을 접수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문화부는 "이번 불미전은 불교미술의 전통성에 중점을 두고 창작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작품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알맞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자 시상식과 전시개막은 1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전시회는 11월 29일-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나는 기자



## 뮤지컬 '원효' 통해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최종미 MBC 공연전문 프로듀서 "원효의 사상 한국인의 정서에 살아 있다"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대한민국, '원효' 같은 뮤지컬을 만들어 한류문화로 선도해야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여의도 MBC본사에서 MBC 창사 50주년 특별기획 앙코르 뮤지컬 '원효'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최종미 MBC 공연전문 프로듀서(사진)는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변하는 인물인 원효 대사의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와 화정(和靜)사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이번에는 국립극장에서 앙코르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아이디' '지킬 앤 하이드' '라이언 킹' 등 해외 유명 뮤지컬을 국내에서 연출한 최종미 PD는 가톨릭 신자다. 하지만 '원효' 제작을 맡으면서 불교와 원효 대사에 대해 공부하고 전국 각지의 사찰을 돌면서 불교에 폭 빠졌고 개종을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원효' 뮤지컬 공연이 끝나면 도선사 주지 선묵 해자 스님이 이끄는 '108산사순례기도회'에 동참할 계획이다.

최 PD는 "지킬 앤 하이드'는 인간의 정신분열을 다루는 내용인데 '원효'는 분열된 정신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사상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1400년 전인 삼국통일 전 복잡한 격동의 시기에 원효 대사의 화정사상이 신라에 영향을 미쳤고 신

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 정신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을 원효 대사에 대해 공부하면서 배웠다"고 말했다.

이어 최 PD는 "IMF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 국민이 금모으기에 동참했고, 지난 해 천안함 사건 때는 온 나라가 슬퍼했다"며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다. 원효의 사상적 토대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에 자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PD는 "뮤지컬 '원효'를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K-POP)과 드라마에 이은 또 하나의 한류콘텐츠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세계 4대 뮤지컬 시장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70% 이상을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이 점령하고 있다. 전 세계인들이 뉴욕에 가면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을 보듯, 전 세계인들이 한국에 오면 100% 창작 뮤지컬 원효를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미 PD는 "뮤지컬 '원효'는 사극이 아니다"며 "역사극임에도 결코 고무하지 않다. 음악, 대본, 무대, 의상 등 모두 현대적인 컨셉이다. 젊은이들이 관람해도 후회 않는다"고 전했다. 불교 사상에 매료된 그는 "원효' 공연을 마친 뒤에는 대장경을 소



찾아간다. 특히 석양이 정을 스님이 원효 어머니였으므로 전격 캐스팅돼 눈길을 끈다.

앙코르 공연 '원효'는 업그레이드 된 최첨단 LED로 황룡사가 등장하고 원효와 요석이 만나는 사랑의 다리 월정교는 달과 강물이 은은하게 퍼져 아름다운 무대를 연출하며 진일보한 무대 기술을 선보인다.

뮤지컬 '원효'는 11월 5-27일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공연되며 신도증을 소지한 불자는 티켓을 구입할 경우 40% 할인 받을 수 있다. (02)789-4883-4 이나는 기자

## 문자와 조각이 만나니 멋드러진 예술이 됐네

전정구 개인전 '칼과 붓' 목인갤러리서

문자와 조각이 합쳐진 장르를 표현하는 전정구 오제 전정구의 4번째 개인전 '칼과 붓'이 11월 9일까지 인사동 목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정구 작가는 전각에 임하면서부터 독창적인 조형과 불교의 선적인 세계를 표현하며 조각적인 요소에 비중을 두었다.

최근 전 작가는 한지를 이용해 질감을 살린 탁본과 수묵만을 이용한 선화와 전각판화로 작업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전 작가는 돌이라는 재료가 담고 있는 투박함과 다시 종이에 반전 되어지는 평면적인 표현을 빌려서 관화와 수묵화로 단순하게 재해석해 이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02)722-5055



'청산은 나를 보고'의 한문판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2	산승불회	유철주	불광출판사
3	불영이 감춘 스님의 비밀 레시피	일문	담양북스
4	붓다를 죽인 부처	박노자	인물과사상사
5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음식 선재	불광출판사	선재
6	슬픔에 더 깊숙이 젖어라 (42장경)	보경	조계종출판사
7	마음공부 첫걸음	김영무	민족사
8	우리 곁에 계신 33관세음보살 이야기	방경일	윤주사
9	경전송길	정운	조계종출판사
10	나를 치유하는 마음여행	서광	불광출판사

www.buddhabook.co.kr  
윤주사 (02) 3672-7181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 황금위패

고급 밤나무 재질, 음각으로 각인 후 금칠, 옷칠 마감, 수작업 개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한 수조각

● 규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프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현대칼라지붕공사

##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 (8월 1일 ~ 11월 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 1일 ~ 11월 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랩,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 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드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